

<서평>

『설교로 풀어쓴 성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설교 66편』

왕대일 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장세훈*

한평생을 성서의 의미와 씨름하며 헌신해 온 구약신학자가 또 다른 산고의 시간을 통해 탄생시킨 설교집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본서는 저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정년퇴임후 <하늘빛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5월30일까지 주일에 선포했던 설교의 결실이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구약학자로 널리 알려진 저자가 학술서가 아닌 설교집을 출간한 것은 사뭇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구약학자의 설교집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신선한 흥미와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서평자는 본서를 처음 집어드는 순간부터 책의 마지막 장에 도달할 때까지 설교에 담긴 저자의 심오한 메시지와 그 탁월한 문학적 전달기법에 깊이 매료될 수 밖에 없었다. 서평자는 본서의 마지막 장을 다 읽고난 뒤 과연 본서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몇 장의 글로 축약해서 모두 표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자가 느꼈던 감동의 여운들을 제한된 지면 안에서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한다.

먼저 저자의 전체 설교의 구성과 본문 선택은 본 설교집의 백미이다. 저자는 전체 설교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한 뒤, 제1부에 해당하는 전반부의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설교는 오경, 역사서, 성문서 및 예언서를 다루고, 제2부에 해당하는 후반부의 설교는 복음서, 역사서, 편지 및 묵시록에 초점을 둔다. 이와 같은 저자의 전체 설교의 구성은 저자의 설교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저자는 교회가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의 순서를 따라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아우르는 설교의 방향을 지향한다. 이러한 거대한 전체 설교의 방향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각 권의 책으로부터 하나의 본문을 선택하여 구약과 신약의 전 권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는 저자의 설교 방향은 청중들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 전체를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설교의 세계로 이끌어준다. 무엇보다도 대략 일 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구약과 신약 전 권의 본문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저자의 설교 구성과 방향은 강단을 책임맡은 목회자들에게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설교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해야 할 설교자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둘째, 본서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저자의 설교의 구성과 방향성이 저자 자신의 설교 철학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저자는 설교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머리말에서 자신의 설교의 정의를 먼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저자에 의하면, 설교란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연주하는’ 일이다”(p. 6). 그리하여 저자는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설교사역의 여정은 한편으로는 기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큰 부담입니다. 각 성경책의 세계에 익숙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오늘의 회중과 청중의 세계에도 친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의 증언(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말글(선포되는 말씀)로 듣게 하는 사역이 설교이지 않습니까?”(p. 6). 이처럼 저자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하나의 축과 “선포되는 말씀(오늘의 말글)”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설교의 양대 산맥으로 이해하며, 이 거대한 설교 철학의 뼈대에 근거하

여 보다 구체적인 설교의 건축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저자의 설교철학과 이해는 설교자들이 다루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어떤 책임지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저자는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성경이 신학자들의 책이기에 앞서 교회와 성도들의 책이었음을 상기시킨다(p. 6). 비록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신학자들의 주석적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설교임을 인식하고 있다. 성경이 단순히 학자들의 책이기에 앞서 교회와 성도들의 책이라는 저자의 외침은 강단을 책임맡은 목회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상기시킨다. 이처럼 저자의 목회적 지향성은 학자로서의 책임성과 아울러 교회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그의 설교 세계에 깊이 배여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셋째, 저자의 설교는 앞서 제시된 설교의 정의와 방향에 근거하여 먼저 ‘기록된 말씀의 거대한 한 축을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구약을 다루는 제1부와 신약을 다루는 제2부에서 저자는 ‘기록된 말씀’의 원 의도를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핵심논점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원어의 용법을 설명하고 그 심층적 의미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해설하는 저자의 전달기법은 감탄을 자아낸다. 예를 들면, 저자는 예레미야 애가 3:19-26의 설교 <신앙의 깊이는 마음의 넓이와 비례합니다>에서 ‘인자’와 ‘궁핍’의 의미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바, 이러한 저자의 해석은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레미야 3:22의 ‘인자’(헤세드)와 ‘궁핍’(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성애에 빗대 해석입니다. ‘궁핍’이란 낱말의 뿌리는 어머니의 ‘자궁’(렉헴)입니다. 어머니는 그 몸에서 난 자식을 한없이 용서하고, 한 없이 품으며,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자)라고 불렀습니다”(p. 219). 또한 저자는 야고보서 2:20-24의 설교 <믿음과 행함은 함께 명예를 맨 동반자입니다>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의 문장에 등장하는 ‘행함’의 헬라이어 ‘에르곤’을 원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맥 속에서

의 그 뜻을 매우 분명히 전달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이때 ‘행함’의 헬라어 ‘에르곤’은 속에 품은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동작입니다. 공적이거나 업적이라기보다는 실천입니다. 내 속에 품은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함입니다”(p. 495). 저자는 헬라어의 원 의미를 통해 ‘행함’이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생각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야만 함을 강조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p. 496)이 바로 ‘행함’이라고 역설한다. 이처럼 저자의 탁월한 원어 풀이와 아울러 본문의 전후 문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본문의 참 의도와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이와 같은 저자의 본문분석과 해석은 “기록된 말씀”에 담긴 그 일차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저자의 일관된 노력을 엿보여준다.

셋째, 저자는 ‘기록된 말씀’과 아울러 그 말씀이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늘의 말글’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을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저자의 정의대로, 설교가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사역이라면, 설교의 과정은 본문과의 씨름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선포되어야 할 오늘의 상황에 대한 씨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함을 함의한다. 특히 각각의 설교의 제목들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달하기 위한 저자의 깊은 고뇌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달하려는 저자의 수고는 설교의 제목에 나타난 문학적 언어유희를 통해 그 절정에 이른다. 예를 들면 저자는 출애굽기 14:21-29의 설교 <길(路)이 끝나는 곳에서 길(道)이 시작됩니다>에서 설교의 핵심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길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저자의 설교의 제목은 청중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개된 설교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도록 이끌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자는 본문의 핵심을 두 가지의 “길”에서 찾는 바, 출애굽 홍해의 길 끝에서 시작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홍해의 길(路)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새로운 길(道)로 묘사한다. 또한 저자는 빌립보서 2:5-11의 설교 <우리의 마음은 단층이 아니라 단층이어야 합니다>에서 그리

스도의 마음을 품어 “나” 중심적 삶에서 다른 이를 위해 섬기는 삶을 요청한다. 여기서 저자는 나 중심적 마음을 “단층(斷層)”으로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또 다른 “단층(單層)”으로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와 같은 ‘언어유희’(wordplay) 혹은 ‘단어놀이’는 구약의 저자들의 기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 이러한 저자의 탁월한 문학적 기법은 성경의 원어에 익숙한 독자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넷째, 저자는 청중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와 예화들을 적지적소에 사용하여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특히 각 설교의 도입부는 영화, 에세이, 소설 및 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청중들에게 설교의 논점에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더욱이 대중문화까지 아우르는 도입부의 접근방식은 저자의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엿보여준다. 심지어 저자는 젊은 세대들의 대중음악의 세계까지 그의 관심분야를 확장시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31-36의 설교 <12월의 기적을 아십니까>에서 젊은 층의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엑소>(EXO)의 노래 <12월 기적>의 가사를 과감하게 선보이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의 제목에 집중하도록 인도한다. 도입부에 등장하는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널리 경험되는 다양한 이슈들과 관심사들을 설교와 접목시켜 청중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도록 이끌어주는 전달 장치로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나아가 저자는 교회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들을 반추하며 그 신학적 의미를 설교에 적용시켜 과거와 현재의 신앙의 연속성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예를 들면, 저자는 에스더 4:13-16의 설교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에서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의 신앙을 반추하며 위기의 순간에 언약의 백성을 구원했던 에스더의 신앙과 그 의의를 오늘의 신앙과 연결시킨다(p. 152-153). 또한 저자는 데살로니가전서 1:6-10의 설교 <신앙생활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공책입니다>에서 바울의 편지와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디바인 에스>에 담겨진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은 디바인 에스로 채워나가

이할 공책”(p. 445)이라는 현대적 메시지와 함의로 귀결시켜 청중들의 여운을 자아낸다. 그러므로 저자의 설교에는 성경의 시대, 초대 중세의 시대 그리고 현 시대를 이어주는 신앙의 연속성이 거대한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으며, 이런 거시적인 안목과 통찰은 이 설교집의 압권을 이룬다.

끝으로 서평자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저자의 설교들이 전하는 깊은 감동들과 함께 저자의 구성방식에 대해 한 가지 제언을 드림으로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저자는 제1부 구약의 설교 부분에서 오경, 역사서, 성문서 및 예언서로 구분한다. 이런 구약의 구분방식은 <히브리 성경/타나크>와 <기독교 성경/70인경>의 순서를 혼합한 것처럼 보인다. 가령, 저자는 <기독교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역대기’를 <성문서>가 아닌 <역사서>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는 ‘역대기’를 끝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아마도 저자가 구약의 순서에서 <성문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히브리어 경전과 기독교 경전을 함께 존중하는 저자의 배려와 고민에 비롯된 것이라 사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혼합적인 구성은 다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평자가 보기에 <히브리 성경>이나 <70인경> 순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순서를 따르는 것이 보다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성경>의 순서에 따라 <성문서>를 <사가서 및 지혜서>로 수정하거나 혹은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역사서>에 포함된 ‘역대기’를 <성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있는 구성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순서와 <기독교 성경>의 순서의 의의를 모두 인식하고 있는 저자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순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구약과 신약 전 책의 본문을 선택하여 그 본문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 시대의 생동감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저자의 헌신적인 설교 사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늘빛 교회>의 강단이 저자의 심오하고도 호소력 있는 영감의 메시지를 통해 지금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의 만나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